



2019년 5월 12일(제928호) 부활 제4주일(성소 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우리들”

오늘은 성소 주일입니다. 성소! 거룩한 부르심! 그 부르심에 대한 것으로 오늘 복음 말씀에서는 양들에 대한 비유를 들려줍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양들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시력이 무척이나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청각이 자연스럽게 발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정말로 수도 없이 이런 질문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왜 사제가 되려 했습니까? 언제부터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아무래도 평범하지 않은 색다름에서 호기심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학생 때에 참 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축구부에 들어가면서 축구선수도 되고 싶었고, 올림피아드 대회들을 나가면서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기도 했습니다. 또 좀 더 있다가 밴드부에 들어가면서 공부도 뭐고 공연만 하러 다녔던 기억도 납니다. 나름대로 참 다양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는 지금! 신부가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신학교에 붙은 것일까!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합니다. 사실 저보다 성적 좋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붙었을까?! 그러면서도 다시금 되짚어보면 그렇게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장래 희망란에는 ‘신부님’이라고 적었던 것입니다.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에는 마냥 행복했습니다. 나도 대학교를 들어갔구나! 정말 이곳을 왔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왜 항상 신부님이 장래 희망이었을까! 도대체 왜 나는 이곳을 왔을까! 제가 지원하고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는지를 모르는 황당한, 바보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저학년 때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매일 성당에 홀로 앉아 울고 불고, 그만두게 해달라고 떼쓰던

기억이 납니다. 짐을 썼다가 풀었다가 또 다음 학기에 썼다가 풀었다가, 이것의 반복이었습니다.

이것을 반복하다보니 후에 저는 완전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정말 이 길이 내 길이구나! 그분께서 이끌어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절대로 이 길을 갈 수 없는 것이구나!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앞만 바라보는 양들처럼 저 또한 그때그때마다 앞에 일만을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 영혼은 항상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것! 그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벌써 저는 낭떠러지에 떨어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소! 거룩한 부르심!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고민합니다. 성당을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믿음에 대하여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믿음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저희의 믿음은 항상 이런 것 같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보고 싶어 하고 느끼고 싶어 하는 것! 그렇지만 내가 눈이 안 좋은 양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듯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못 느낀다고 하더라도 내 영혼은 항상 그분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거룩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불림을 받은 우리는 착한 목자를 섬기고 있습니다.

착한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또다시 한 주를 시작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박성빈(리피엘) 신부
희성대(10진비비) 성당 주임

- 제 1 특 시 사도 13,14.43-52
- 회 답 송 ◎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제 2 특 시 묵시 7,9.14ㄴ-17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 복 음 요한 10,27-30
- 영 성 제 송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양재현 마르티노



성인명: 양재현 마르티노 (梁在鉉 Martin)
 신분: 죄수, 순교자
 활동연도: 1827-1868년

1827년에 태어난 양재현(梁在鉉) 마르티노는 언제부터인가 경상도 동래의 북문 밖에서 살았다. 그는 동래에서 좌수(坐首)라는 직책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정식 요한 회장을 만나면서 천주교 신앙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후 그에게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1868년의 박해 때에 양 마르티노는 천주교 신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동래 포졸들에게 체포되었다. 당시 그는 포졸들이 집으로 들이닥치자 태연하게 그들을 맞이하며 관아로 끌려갔다. 이윽고 관장 앞으로 나가 문초와 형벌을 받게 되자, 양 마르티노는 천주교 신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는 형벌을 달게 받았다. 또한 관장이 배교를 강요하자, “절대로 천주교 신앙을 버릴 수 없다.”고 하면서 조금도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옥에 갇혀 있다가 다시 문초를 받고 수군의 병영으로 이송되었다.

양 마르티노는 수군의 병영에서 다시 문초와 형벌을 받았지만, 배교를 거부하였기에 옥에 수감되었다. 그러나 옥에 들어가서는 옥졸의 꾀에 빠져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몰래 그곳을 빠져나와 집으로 되돌아갔다. 양 마르티노가 집으로 돌아가자 옥졸은 관장에게 가서 ‘죄수가 몰래 도망쳤다’며 거짓으로 보고하였다. 이내 포졸들이 다시 양 마르티노의 집으로 몰려왔고, 그는 곧장 다시 체포되어 동래 관아로 압송되었다. 양 마르티노의 신앙심은 이때부터 다시 굳건해지게 되었다. 동래 관장은 마침내 사형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옥에 있는 신자들을 끌어내 군대 지휘소가 있는 장대(將臺)로 압송하였다. 이때 양 마르티노는 끝까지 배교를 거부하고 십자 성호를 그른 다음에 칼을 받았다. 그의 나이는 41세로 1868년 9월이었다.

복 음 록 상

- 배영길(비드로) 신부 / 예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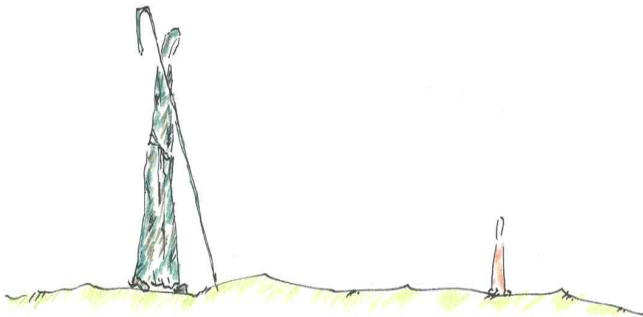
나를 닮은 아이

그의 거친 손,
 누더기,
 부스스한 머리,
 검게 탄 얼굴,
 다 떨어진 신발.
 무엇하나 맘에 드는 것이 없었다.
 무엇보다,
 그가 든 그 큰 지팡이는
 나를 두렵게 만들었다.

싫었다. 그 모습이.

나이 들면서
 그 모습이 내 모습이어야 함을
 알았다.

그가 나이더라.



상화이야기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 그림에는 하단부의 석관 같은 부분을 한발로 짚으신 채, 마치 이제 곧 무덤에서 나오실 것처럼 자세를 취하신 예수님이 보인다. 예수님은 한 손에는 승리의 깃발을 들고 계시고 나머지 한손은 마치 축복을 내려주시듯이, 아니면 우리를 부르시려는 듯 들고 계시며, 고개를 위로 올려 하늘을 바라보고 계신다. 예수님 뒤로는 눈이 부시게 빛나는 휘광이 둘러싸여 있어, 수난으로 인해 온몸이 온갖 끔찍한 상처와 피로 뒤덮였던 예수님이 몸이 희고 깨끗하게 변모하셨음을 더욱 강조시킨다.

화가는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나 무덤이 묻혀있던 돌산 배경 등은 제외시켜, 오로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 자체만 강조했다. 예수님의 표정은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시듯 단호하고 신념에 차 계신듯 보인다.

베르그노네, 1490년경 제작
 피넬 위 유희, 114.5x61.2cm
 Washington, D.C. 국립미술관, 미국

부활의 참 기쁨은 예수님의 수난에 진심으로 동참했을 때에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시련을 겪은 후에야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에 감사할 수 있듯이 말이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부활 제4주일: 비성대 천로우 신부

◆ 교구장 동정

- 진해해군(진기사) 성당 사목방문
 때: 5월 12일(주일)
- 회의
 때·곳: 5월 14일(화), 교구청 회의실
 국장회의 11:00, 사제평의회 14:00, 참사회의 16:00
- 수녀 하계 수련회
 때·곳: 5월 14일(화)~17일(금),
 제주 성 이시돌 피정의 집

◆ 교구 청소년대회 참가 신청 안내

- 대상 : 교구 내 중1~고2 청소년(총 30명)
- 일시 : 2019년 7월 29일(월)~8월 2일(금)
- 장소 : 베트남 다낭
- 금액 : 130만원(총 170만원, 교구지원 40만원)
- 모집기한 : 2019년 5월 31일(금)
- 문의 : 교육국(02-749-1921, 내선번호 4번)

“모든 이를 심기는 삶” - “네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요한 13,14)